

뉴욕타임즈 광주학생독립운동 보도사실 확인

1929년 12월26일자 ‘180명 체포’ 등 3차례 보도

전남대 김재기 교수 발굴…“세계적인 사건 입증”

세계적인 영향력을 지닌 뉴욕타임스가 광주학생독립운동 발발 당시의 관련 기사를 3차례나 보도한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전남대학교 김재기 교수(정치외교학과)는 3년간의 추적 끝에 지난 7월 미국 뉴욕 맨하탄에 있는 뉴욕공공도서관에서 1929년 12월26일자 ‘동경경찰 한국학생 180명 체포’라는 제목의 기사 등 모두 3건을 발굴해 광주학생독립운동 90주년을 앞두고 공개했다.

김 교수가 공개한 광주학생독립운동 관련 첫 기사는 “한국에서 발생한 학생 시위는 공산주의 경향의 비밀결사가 주

도한 정치적 사건으로, 1929년 12월9일 900여명의 학생들이 체포됐다”며 “한국의 6개 지방 40여개 학교에서 시위가 일어났으며 조선총독부에 의해 모든 사건이 종료됐다”고 보도했다.

또 이를 후인 12월28일자에서는 ‘한국 학생들이 시위 준비로 체포됐다’라는 제목으로 “일본 동경경찰은 한국유학생과 노동자 100명을 체포했다. 이들은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한국인들로 구성된, 동경에 있는 대학의 비밀단체이다. 12월9일 서울에서 900명이 체포됐다”고 전했다.

세 번째 기사는 1930년 2월4일자에 “일본 외무부는 한국인의 총격 사건이나

심각한 교란에 대한 정보가 없다고 밝히고, 몇 주 동안 한국에서 광범위한 학생 시위가 보고됐지만, 시위는 격렬하지 않았으며 일본에서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조선총독부가 판단한 한국의 정치적 불안은 공산주의자가 중심이 돼 일으켰다. 많은 학생들이 체포됐지만 공산주의 영향을 받은 학생들은 소수였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광주학생독립운동을 축소·왜곡해 일부 소수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사소한 일로 취급하려는 일본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데, 이는 동경주재기자가 일본정부에 의존한 간접취재를 하면서 드러난 한계로, 광주나 서울에서의 대규모 시위를 현장감 있게 담아 내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비해 독일 베를린에서 발행된 포쉬에 자이퉁(Vossische Zeitung)의 193

0년 2월23일자 기사는 리처드 카츠 기자가 서울에서 직접 취재해 A4 4매 분량으로 자세하게 전했다. 미국의 유력 일간지 워싱턴포스트도 1930년 1월과 3월 2회에 걸쳐 ‘북미한인유학생회 소식지’를 인용해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실상을 적극 알렸다.

광주학생독립운동은 1929년 11월부터 1930년 3월까지 5개월 동안 민족주의계와 공산주의계가 연대해 전국 8도 320여개 학교에서 진행됐으며, 미국, 중국, 일본, 멕시코, 쿠바 등 해외에서까지 지지대회와 특별후원금 모금운동이 진행될 정도로 파급력이 컸다.

김 교수는 “광주학생독립운동이 워싱턴포스트에 이어 뉴욕타임스에까지 보도됐다는 것은 세계적인 관심을 받은, 세계적인 운동이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이를 교과서에 수록하고, 화보집으

로 제작해 전국 학교와 도서관에 배포하는 등 교육용으로 활용해야 하며, 광화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천안 독립기념관,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등에 전시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다.

앞서 김 교수는 지난 10년 동안 중국 공산당 기관지 ‘홍기’와 중국 국민당 기관지 ‘중양일보’, 독일신문 ‘포쉬에 자이퉁’, 소련공산당 기관지 ‘프라우다’에 광주학생독립운동 관련 기사를 발굴한 바 있다.

또 쿠바, 멕시코에서 광주학생독립운동을 지지하고 후원한 내용의 기사와 상해임시정부 김구선생이 미주한인들에게 보낸 감사편지를 샌프란시스코에 있었던 대한민국민회 기관지 ‘신한민보’에서 찾아냈으며, 지난 2017년에는 ‘워싱턴포스트’ 보도기사도 찾아낸 바 있다.

/김종민 기자



광주학생독립운동 소식을 3차례 전한 뉴욕타임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경제현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文 “전세계 성장둔화…재정지출 확대해야”

올 첫 경제장관회의 소집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경기가 어려울 때 재정지출을 확대해 경기를 보강하고 경제에 힘을 불어넣는 것은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무엇보다 민간 활력이 높아져야 경제가 힘을 낼 수 있다”며 민간 투자 확대를 경제 활력을 높여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주재한 경제장관회의에서 “지금 우리는 경제·민생에 힘을 모을 때이다. 올해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가

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제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경제 정책을 점검하기 위해 경제 관련 장관들을 초집합시킨 것은 올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무역갈등 심화와 세계 제조업 경기의 급격한 위축으로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성장 둔화를 겪는 상황”이라고 세계 경제를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처럼 제조업 기반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이런 흐름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가 중심을 잡고 경제활력과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

했다. 또 “그간 정부는 적극적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의 위축을 막고 경기 반등 여건을 조성하는 데 주력해왔다”며 “이런 노력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확장 기조로 편성된 내년 예산안이 잘 처리되도록 국회 협조를 구하면서 올해 본 예산과 추가경정 예산을 철저히 관리해 이월·불용하는 예산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세계경기 둔화로 인한 수출·투자 감소를 타개하기 위해 수출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합뉴스

전남도, 철새 도래지 AI 차단방역 강화한다

21일까지 순천만·영암호·해남 고천암호 등 집중 소독

전남도는 겨울철새가 날아오는 시기가 다가오고 충남 천안의 야생조류 분변에서 저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철새 도래지 방문을 통제하고 방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 동원해 매일 소독하는 등 AI 차단방역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오는 21일까지 순천만, 영암호, 해남 고천암호 등 주요 철새 도래지에 군 제독차량, 농협 공동방제단 및 방역방제기, 시군 소독차량을 동원해 집중 소독에 나선다.

이용보 전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철새가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고병

원성 AI 유입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가금농가에서는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가금농가 협조사항은 ▲철새 도래지 출입 자제 ▲축사 내외벽 그물망 정비 ▲축사 주변 출입구부터 울타리 둘레 생석회 도포 ▲축사 출입 시 전용 의복과 신발 착용 ▲의심축 발생 시 신속히 신고(1588-4060) 등이다.

/김재정 기자

광주 재해취약지 일제점검

광주시는 붕괴·침수 등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취약지역(시설)의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재난위험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11월14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점검은 최근 제18호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집중호우와 산사태, 토사 붕괴 등이 발생하면서 전국 곳곳에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점을 감안해 추진했다.

먼저 급경사지 붕괴, 침수, 토사유실 등으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위험지역의 응급조치 및 중장기 정비계획, 주민 사전 대피 계획 등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생활주변의 위험요인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주민들로부터 재난 위험시설·지역 등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

이후 관련 분야 전문가, 공무원, 주민이 함께 위험시설에 대한 정밀 점검을 실시해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한편 중점 관리대상 시설물로 지정·관리할 예정이다.

/최권범 기자

日신문 “이낙연-아베 회담 24일로 조율”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내주 일본을 방문할 이낙연 한국 국무총리와 24일 회담할 의향을 굳혔다고 도쿄신문이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 설명을 토대로 17일 보도했다.

산케이신문도 아베 총리가 24일 이 총리와 개별 회담을 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이라고 복수의 한일 양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아베 총리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일본을 방문할 각국 정상과 만날 예정이며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이 총리와 아베 총리는 단시간 회담할 것으로 관측된다.

/연합뉴스

이 총리는 나루히토 일왕의 즉위를 일본 안팎에 알리는 22일 행사에 한국 대표로 참가한다. 23일에는 아베 총리가 각국 대표를 초청해 개최하는 만찬에 참석한다. 정용 배상 관계를 둘러싼 대립을 시작으로 한일 관계가 극도로 악화한 가운데 이 총리와 아베 총리의 만남이 양국 갈등을 극복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아베 총리는 전남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한일 관계에 관해 “우리는 대화를 항상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근래에는 드물게 한국과의 대화 의사를 부각했다.

/연합뉴스

임 야

바로잡니다.

당일처리, 010-6834-7400

투자 자문

급매물/경매특수물건

법적으로 보장.010-3605-5000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시랑받는 廣告안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렸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접수

▶광고국/☎ 650-2099 650-2071~2 F.650-2016

▶시내지역 및 각 지방지사

대명OA

취/급/품/목

- 복사기 • 컴퓨터 • FAX • 팩스용지
- 레이저 및 잉크젯 프린터 • 전산소모품
- 레이저(토너/드럼) • 복사용지 • 각종인크류
- 카트리지 • 판배 • 임 대 • A/S

T.062)375-5880

광주광역시 동구 공고 제2019 - 1203 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제]공고

「주택법」제15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광주광역시 동구 소재동 459-1번지 일원 소재동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 공사를 위한 광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공고 제2018-516호(2018.5.21.)로 열람공고 하였고, 관련부서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의견에 따른 변경사항이 있어 「토지이용규제기법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0월 18일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동구 소재동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

나. 위치 : 광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안) - 나. 위 치 : 광주광역시 동구 소재동 459-1번지 일원

다. 면 적 : 25,400㎡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지면적: 19,084㎡)

2.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2019. 10.18. ~ 2019. 10.31. (14일간)

나. 공람장소 : 광주광역시 동구청 4층 건축과, 지한2동 행정복지센터

다. 의견제출서식 : 공람장소 비치

3. 주민의견 제출

가. 제출장소 : 광주광역시 동구청 4층 건축과

나. 제출방법 :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열람 장소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동구청 건축과(☎ 062-608-287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의 650-2022

다스코주

Development Resource Solution Co., Ltd.

세라코주

Ceramics Korea Ltd.

KOSPI 상장기업 **동아에스텍**의 새 이름 **다스코!**

세라믹 전문기업 **동아세라믹**의 새 이름 **세라코!**

태양광발전소 사업 관련 모집

1. 태양광발전소 사업주 모집

- 태양광발전소가 가능한 토지를 매매하고 싶으신 분
- 태양광발전소가 가능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설비투자금이 없으신 분
- 태양광발전소가 가능한 토지를 임대하였으나 설비투자금이 없으신 분

2. 태양광발전소 영업대리인 모집

- 태양광발전소 부지 설치가 가능한 분
- 태양광발전소 사업주로부터 시공을 위탁 받으신 분
- 대표 FPC자가 필요하신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

3. 태양광 영업 인제 모집

- 태양광 EPC영업 유망형자
- 태양광 구조물 영업 유망형자
- 태양광 개발사업 유망형자

ONE-STOP TOTAL SOLUTION

태양광사업의 A to Z 프로젝트 개발부터 EPC, O&M까지

접수문의 : 담당자 02)3440-7842, jykang@dasco.kr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핵심 인재를 모집합니다!

부 문	담당업무	자격요건	근무지
다 스 코	전략기획	전략기획	화 소
	신재생에너지	영업	
세 라 코	수출장화	설계영업	나 주
	세라믹 (정토백돌)	영업	

※ 접수문의 : 담당자 06)370-2137, recuul@dasco.kr, 접수기간 : ~ 제청시까지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 공증 · 공사대금 · 각서 · 운송료 차용증 · 거래장부 · 계약서 · 통장 내역 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없음 ◀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할 수 있음)

- 채무자 부동산, 전세금, 신용, 주거래은행, 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 가능

영업직

신입 · 경력직 모집

채권추심직

경력직 모집

*업계 최고대우함

선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 연락두절 채무자 파악
- 개인 · 법인 신용조사 재산조사만 별도가능
- T/M직원 모집 ● 남 · 여 직원모집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062-228-0990~1/HP 010-5679-0990

백운동·조대방면으로 남광주농협 인근신협3층